



임실군, 드림스타트 6학년 아동 졸업여행 다녀와

임실군이 지난 14일 드림스타트 6학년 아동 16명을 대상으로 졸업여행을 실시,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열기 가득한 하루를 보냈다.

“너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여행은 초등학교를 마치는 아쉬움과 중학생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자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실시했다.

드림스타트 졸업 예정인 16명과 임실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려 나주 흥흥스파리조트에서 진행됐다.

이번 여행 장소인 워터파크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평소 가고 싶어 하는 1순위 장소로, 임실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마음껏 놀고 드림스타트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남겨주고자 마련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고창경찰서, 도박 선도프로그램 실시

고창경찰서(서장 한도연)는 20일 청소년 4명에 대해 경찰 단계 선도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찰 단계 선도프로그램은 소년법 및 비행 청소년 대상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으로 범죄예방 및 재비행 방지 등 조속한 사회 복귀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은 전북도박문제방지유선센터를 통해 사람의 교실 도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불법 도박 범죄에 신속 대응하고 도박 청소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과 보호자의 동의를 마련했다.

이번 경찰 단계 도박 선도프로그램에서는 도박 중독예방 교육 및 1:1 상담 등으로 이루어지고 14일과 20일 2일에 걸쳐 총 10시간 진행하였으며, 이수자에 대해서는 소년법 전문가참여제 실시 및 당분간 모니터링을 하고 고창군 ‘청소년 안전망’에도 연계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소방서, 여름철 식중독 주의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과 호우로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음식물이 상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돼 식중독 예방을 강조했다.

예방법은 음식을 조리할 때 30초 이상 손 씻기 △위생장갑 착용 △채소, 어패류 등은 흐르는 물에 2~3회 세척 △수돗물은 표면, 내장 등 수돗물로 깨끗이 제거 및 세척 △음식물 85°C 이상에서 충분히 가열 등이다.

안동훈 대응예방과장은 “음식 섭취 후 복통, 구토, 설사 등이 집단으로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1회 완주군 백중날 전통문화축제’ 성황리 마쳐

읍면별 농악단의 대동놀이 특별공연 등 진행... 전통문화 현장 보존·향유

완주군이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에서 ‘제1회 완주군 백중날 전통문화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백중날은 음력 7월 15일 농민들이 일손을 놓고 하루 쉬어가던 일종의 노동절로 술땀이, 호미씻이 등을 하며 흥겨운 놀이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기던 세시풍속이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백중날 전통문화축제는 완주군이 주최하고 (사)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이사장 이상배)의 주관으로 관내 농악단과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 17일 개최됐다.

읍면별 농악단과 술박물관에 방문한 방문객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원과 풍요를 기원하는 대동놀이를 시작으로 마을 농악단별 풍물놀이, 고고장구 특별공연으로 흥을 돋우고, 음식을 나누며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희수 완주생문동 농악분과위원장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가 아쉽지만 했는데, 올해 완주생문동에 농악분과가 생긴 이후 이런 기회가 생겨 기쁘다”며 “불거리, 즐길 거리가 더욱 풍성하고 한걸음 성장한 축제로 자리잡아 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이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에서 ‘제1회 완주군 백중날 전통문화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우리 전통문화를 함께 즐기고 보존하는 뜻깊은 축제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힘을 보태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장수군산림조합, 토종다래 재배기술교육 실시

다래생산농가 15명 참여 ‘큰 호응’

장수군산림조합(조합장 한상대)은 최근 토종다래파밍농장(강원도 원주)을 운영중인 정성운 대표를 초빙하여 장수읍 대성리 다래농장에서 다래생산농가 1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토종다래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했다.

토종다래는 흔히 ‘산다래’라고 많이 불리며 키위와 비슷하게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며 당도 역시 뛰어나며, 비타민이 풍부하여 피로회복 및 체력강화에 좋고 함양작용을 하는 열매로 위암, 식도암, 유방암 등에 좋아 약재로도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날 교육은 토종다래 품종 중 극대와 품종인 ‘대보’의 선정 및 전지, 병해충 방제, 수확시기, 포장방법 등 고품질 생산 재배 기술을 그간 정성운 대표의 경험을 토대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또한 다래 재배 현황 및 재배 전망, 다래 후숙 및 저장관리, 가공 및 제품 생산 등 다래 재배 농가에 맞는 실무 교육도 이어졌다.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에 참여한 다래 재배 농가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그에 맞는 해결방법을 찾는 시간을 갖기도 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상대 조합장은 “토종다래 대보는 특유의 식감과 극대와 품종이랑 이점을 바탕으로 향후 장수군 임업인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라며 “수확시기가 다가온 만큼 장수군 레드페스티벌에서 시식행사를통해 이를 홍보할 예정이며 대보가 장수군을 대표하는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장수=교관호 기자



정읍경찰서, 결혼이주민 대상 범죄예방 교육 실시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에서는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하여 정읍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이해그림’이라는 제목의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신종 수법이 계속해서 발달 해 가는 보이스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사칭 유형 △대출사기 유형 △진인사칭 유형 △SNS 신종 사기 등을 한국어가 서툰 한국문화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 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 하였으며, 실제 외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사례를 알세워 선제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협조하여 신종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김한곤 정읍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외국인 결혼이주민의 정착안정성 유지 및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소방서, 22일까지 ‘2024년 을지연습’ 실시

김제소방서는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3박 4일간 국가위기관능력 향상을 위한 2024년 을지연습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국가 위기관리 및 전시 전환 절차 연습과 전쟁 발발 시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한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 위기관리 종합훈련이다.

김제소방서는 이번 을지연습 기간 △국가 차원의 총체적 위기관리 및 전시 상황 수행 연습 △전·평시 국가 비상대비 계획 검토 및 절차 숙달 △각종 상황처리 보고 및 보안 등을 실시성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을지연습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공무원의 비상사태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강화해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교월동 봉월마을, 어르신들 원예활동 진행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는 20일 어르신 섬김 으뜸마을로 선정된 봉월마을(월봉동 소재, 통장 이정길) 경로당에서 어르신 20여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섬김 으뜸마을 프로그램’의 일환인 ‘어르신 마음담기 힐링원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은 어르신이 많은 마을의 특성을 고려해 원예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갖도록 돕고자 기획됐으며, 원예전문강사의 지도로 어르신들이 자신의 손으로 식물을 심어 화분을 꾸며보는 활동을 진행했다.

최현숙 동장은 “교월동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8874	남원지사 632-398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8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8845-9835	팔복지사 253-8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823	고창지사 563-88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